

SK 텔레콤,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AI 밸류체인 구축·경쟁력 강화로 하반기 AI 성과 창출 가속화 전망

- 연결기준 매출 4조 4,224 억원·영업이익 5,375 억원·순이익 3,502 억원 기록
-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개인형 AI 비서 경쟁력 강화 등 AI 성과 창출 속도
- 엔터프라이즈 지속 성장 속 AI 클라우드 사업 첫 수주...본격 스케일업 추진
- 2분기 주당 830 원 배당, 투자·재무건전성·주주환원 간 최적의 균형 이룰 것

[2024. 08. 06]

SK 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연결 기준 2024년 2분기 매출 4조 4,224 억원, 영업이익 5,375 억원, 당기순이익 3,502 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유무선사업 및 주요 관계사들의 실적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16.0% 증가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클라우드 수주 증가에 힘입어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해 4,342 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AI 클라우드 사업 첫 수주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으며, 향후 AI 클라우드 사업의 본격 스케일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도 기준 매출은 3조 1,915 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04 억원, 2,803 억원을 기록했다.

SKT는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AI 데이터센터, AI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구축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SKT는 지난 해부터 AI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심 영역의 구체적인 AI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속적인 가동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5%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SKT는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을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진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최근 미국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Smart Global Holdings(SGH)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영역 전반에서 협력키로 했다.

SGH는 수 천에서 수 만개의 대규모 GPU 서버로 구성된 AI 클러스터를 설계·구축·운영하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메타(Meta)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 클러스터 구축을 담당하는 등 세계적인 역량을 갖췄다.

SKT는 데이터센터 관리노하우, 액침냉각 기술 등 그룹이 보유한 데이터센터 사업 역량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해 국내는 물론 해외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와의 텔코 LLM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SKT를 비롯한 도이치텔레콤, e&(이앤), 싱텔, 소프트뱅크는 지난 6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SKT는 한국어 텔코 LLM을 먼저 개발 완료하여 현재 고도화 및 서비스 적용을 진행 중이다. SKT의 텔코 LLM은 고객 센터, 인프라, 마케팅·유통망과 같은 고객 접점부터 법무, HR 등 사내 업무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6월 말 기준 5G 가입자가 1,623만 명을 기록해 5G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96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705만명을 확보했다. 2분기 로밍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약 123만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세를 기록했다.

로밍 서비스는 올해 이용자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통신 영역의 부가적인 매출 성장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7월에는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T기내 와이파이'도 출시했으며, SKT 고객 만의 차별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엔터프라이즈 영역 중 IoT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사업도 일회성 효과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에이닷 6월말 기준 가입자는 455만명으로, 지난 해 말 약 320만명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대표 AI 개인비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이닷은 하반기 생성형 AI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AI 서비스들을 추가하는 대대적 서비스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T는 미국에서 '구글 대항마'로 부상한 생성형 AI 검색 전문 기업인 퍼플렉시티에 투자하고 한국어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검색엔진을 함께 개발중이다.

T우주 가입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우주패스 넷플릭스' 출시 등에 힘입어 2분기말 기준 270 만명을 돌파했다.

2 분기 배당금은 1 분기와 동일한 주당 830 원으로 확정됐다.

SKT 김양섭 CFO는 "유무선 사업 실적을 공고히 하며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 AI 기업으로서의 성과도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성장투자, 재무구조개선, 주주환원 간 최적의 밸런스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4.2Q	23.2Q	YoY	24.1Q	QoQ
매출	44,224	43,064	2.7%	44,746	△1.2%
영업이익	5,375	4,634	16.0%	4,985	7.8%
순이익	3,502	3,478	0.7%	3,619	△3.3%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4.2Q	23.2Q	YoY	24.1Q	QoQ
매출	31,915	31,192	2.3%	31,887	0.1%
영업이익	4,504	3,791	18.8%	4,364	3.2%
순이익	2,803	2,728	2.8%	4,921	△43%